초고령화사회, '맞춤형 영양' 내세운 케어푸드 시장 뜬다

지난해 65세이상 고령자 1084만명
연세유업 의료진 전문성 살린 제품
빙그레 특허 출원 단백질 등 적용
대상웰라이프 맛 선택지 다양화

세브란스케어 구수한맛 /연세유업

GLC 더케어 2종 /빙그레

뉴케어 오트아몬드맛 /대상웰라이프

국내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처음으로 20%를 넘어섰다. 통계청 기준 한국은 2024년 초고령사회에 공식 진입했으며 고령 인구 증가가 소비 구조 전반에 변화를 불러오고 있다. 식품 산업 역시 예외는 아니다.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25년 주민등록 인구통계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전년 대비 5.69% 증가한 1084만822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주민등록 인구(5111만7378명) 가운데 약 21%를 차지한다. 고령층이 인구 구조의 중심으로 이동하면서 식품 소비는 단순한 포만 중심에서 '영양 설계'와 '기능 관리'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재편되는 모습이다.

특히 케어푸드 시장은 일반식 섭취가 어려운 고령층을 넘어 저작·연하 기능 저하, 만성질환 관리, 일상적 건강 관리 수요까지 포괄하는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다. 소비자 역시 브랜드 인지도보다 영양 근거와 장기 섭취 가능성을 따지는 '합리적 선택'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에 유통업계가 발 빠르게 고령층을 겨냥한 제품을 출시하고 있다.

연세대학교 연세유업은 최근 세브란스병원 가정의학과 및 영양팀과 공동 개발한 완전균형영양식 '세브란스케어 구수한맛'을 선보였다. 식품 제조 역량에 의료진의 임상 경험을 결합해 케어푸드 시장에서 전문성과 신뢰도를 동시에 강화하겠다는 전략이다.

제품은 연세유업 전용목장에서 생산한 A2단백 원유와 100% 국산콩 효소분해 두유 원액을 기반으로 했다. A2단백 원유는 소화 부담 요인으로 지목되는 BCM-7 생성량이 상대적으로 낮고, 두유 원액은 연세유업의 REH 공법을 적용해 장내 가스 발생 인자를 제어했다. 여기에 근육 유지에 중요한 류신 아미노산과 연세대 특허 소재를 적용해 기능성을 강화했다. 식사 대용으로 활용 가능한 설계 역시 특징이다.

빙그레는 지난해 영양식 전문 브랜드 'GLC 더:케어'를 론칭하며 케어푸드 시장에 본격 진입했다. 'Golden Life Care'를 콘셉트로, 고령층의 일상 영양 관리를 겨냥했다.

대표 제품은 완전균형영양식과 당뇨영양식 2종으로, 자사 특허 출원 단백질과 비타민·미네랄 조합을 적용했다. 특히 당류와 나트륨을 낮추고 식이섬유를 강화해 혈당 관리 수요까지 고려했다.

식품기업에서는 대상웰라이프가 균형영양식 브랜드 '뉴케어'의 맛 선택지를 넓히며 소비자 접점을 확대하고 있다. 기존 구수한맛, 검은깨맛에 이어 지난해 '오트아몬드맛'을 추가하며 고령층뿐 아니라 일반 소비자까지 아우르는 전략을 강화했다.

오트아몬드맛은 오트의 부드러움과 아몬드의 고소한 풍미를 결합한 것이 특징이다. 한 팩에 5대 영양소를 균형 있게 담고, 비타민·미네랄을 강화해 일상 영양 보충용으로도 활용도를 높였다. 장 건강을 고려한 이소말토올리고당 함유도 차별화 요소다.

식품업계는 초고령사회 진입을 기점으로 케어푸드를 '특수식'이 아닌 일상 소비재로 재정의하고 있다. 단순 제품 출시를 넘어 의료 협업, 기능성 설계, 맛과 섭취 편의성까지 경쟁 요소로 떠오르며 시장 주도권 경쟁도 한층 치열해질 전망이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2.6억 오디오부터 붉은말 골드바까지…

"편의점서 설 명절 이색선물 사볼까?"

실속형부터 초고가 상품까지 다양
가격 스펙트럼 넓혀 판매 경쟁 돌입

편의점 4사가 각양각색 설 선물세트 예약판매에 들어선다. 가성비와 프리미엄 선물 세트가 모두 있는 게 특징이다. /이마트24

민족 대명절 설을 앞두고 편의점 업계가 초고가 프리미엄 상품과 실속형 가성비 상품을 아우르는 선물 세트를 대거 선보이며 본격적인 판매 경쟁에 돌입했다. 올해 설 선물 시장은 고물가에 따른 소비 양극화 현상이 뚜렷해짐에 따라 억단위 명품부터 1만원대 실속형까지 가격 스펙트럼이 한층 넓어졌다.

CU는 설 선물로 편의점 업계 역사상 최고가 수준인 2억6040만원 상당의 '오디오벡터 네트워크 오디오 패키지'를 내놓으며 프리미엄 수요를 정조준했다. 이는 덴마크 하이엔드 오디오 브랜드인 오디오벡터의 수제작 패키지로, 가치 소비를 중시하는 VVIP 고객을 겨냥했다.

GS25도 프리미엄과 가성비 상품 모두 준비했다. '우리동네 선물가게'를 테마로 총 700여 종의 상품을 선보인 가운데 병오년을 겨냥한 금테크 상품이 눈에 띈다. 대표 프리미엄 상품으로는 '붉은 말 골드바(37.5g)'가 꼽힌다. 가격은 시세에 따라 변동되나 약 1010만원 선으로 책정됐다.

세븐일레븐은 만물상 콘셉트로 550여 종의 상품을 준비했다. 특히 최근 2030 세대를 중심으로 확산된 '러닝 열풍'을 반영해 기능성 스포츠 액세서리를 선물 세트로 구성한 점이 이채롭다.

이마트24는 소비를 통해 만족과 행복을 추구하는 '필코노미(Feelconomy)' 트렌드에 집중했다. 편의점 업계 단독으로 '갤럭시 워치8'과 '갤럭시 버즈3 FE' 등 웨어러블 기기를 선물 세트로 구성해 천만 러닝족을 겨냥했다.

/손종욱 기자 handbell@

HK이노엔 '케이캡' FDA 신약허가 신청

내년 1월 발매 목표

HK이노엔은 지난 9일(현지 시간)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 위식도역류질환 국산 신약 '케이캡' 신약허가신청서(NDA)를 제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허가는 ▲비미란성 위식도역류질환(NERD) 치료 ▲미란성 식도염(EE) 치료 ▲미란성 식도염 치료 후 유지요법 등 세 가지 적응증에 대한 동시 승인을 목표로 한다.

HK이노엔에 따르면, 미국 내 약 6500만 명의 위식도역류질환 환자 중 35%~54%는 기존 치료제로도 증상이 충분히 조절되지 않아 미충족 의료 수요가 높다. HK이노엔은 향후 FDA에서 미국 허가 승인을 획득해 오는 2027년 1월 환자와 의료진에게 케이캡(테고프라잔)을 새로운 치료 옵션으로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케이캡은 앞서 2000명 이상의 미국 환자가 참여한 핵심 임상3상 'TRIUM pH 프로그램'에서 우월한 임상 데이터를 확보했다.

비미란성 위식도역류질환 환자에서 테고프라잔은 24시간 가슴 쓰림이 없는 날의 비율에서 위약 대비 우월성을 보였으며, 야간 가슴 쓰림이 없는 날의 비율과 위산 역류 증상이 없는 날의 비율에서도 위약 대비 우월성을 나타냈다.

또 모든 등급(LA 등급 A-D)의 미란성 식도염 환자에서 테고프라잔은 2주 및 8주 시점 모두 PPI 계열인 란소프라졸 대비유의미한 우월성을 보였다. /이청하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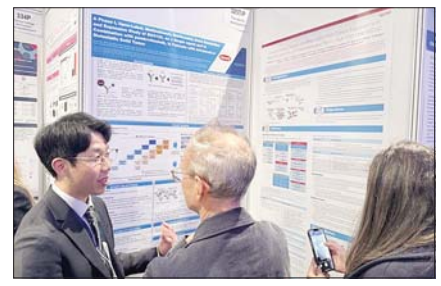
한미 면역항암제, 임상 1상서 유효성 입증

'BH3120', 치료 잠재력 확인

한미약품과 북경한미약품이 차세대 면역항암 혁신신약으로 공동 개발 중인 'BH3120'의 단독 및 MSD의 항 PD-1 면역항암제 '키트루다(KEYTRUDA)' 병용 임상 1상에서 초기 유효성과 우수한 안전성을 확보하며 치료 잠재력을 확인했다.

한미사이언스 핵심 사업회사 한미약품은 지난달 10~12일(현지시각) 영국 런던에서 열린 유럽종양학회 면역종양학 학술대회에서 차세대 면역항암제 BH3120의 임상 경과를 포스터에 담아 발표했다고 13일 밝혔다.

BH3120은 하나의 항체가 서로 다른 두 개의 표적에 동시 결합하는 이중항체 플랫폼 기술 '펜탐바디'를 적용한 항암신약으로, 이를 통해 암세포만 공격하는 표적 항암치료와 면역세포를 활성화시키는 면역 항암치료를 동시에 가능하게 한다.


한미약품 ONCO임상팀 김성중 선임연구원(왼쪽)이 지난달 11일(현지시각) 영국 런던에서 열린 유럽종양학회 면역종양학 학술대회에서 포스터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BH3120은 암세포 표면에 위치한 PD-L1과 면역세포 표면의 4-1BB를 동시에 타깃해 면역세포가 종양세포를 쉽게 인식하고 세포 사멸을 유도할 수 있는 '브릿지(bridge)' 역할을 수행하도록 설계됐다. /이세경 기자 seilee@

일라이 릴리, 엔비디아와 AI 신약개발 속도

AI 공동 혁신 연구소 설립 계획 발표

글로벌 제약 시장에서 이종 산업간의 협력이 이뤄지면서 '인공지능(AI) 기반 신약개발'에 대한 기대감을 높인다.

13일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지난 12일(현지 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고 있는 JP모건 헬스케어 콘퍼런스 2026에서 글로벌 빅파마 일라이 릴리와 반도체 설계 전문 기업 엔비디아가 '인공지능(AI) 공동 혁신 연구소' 설립 계획을 발표했다.

양사는 향후 5년간 인재 확보, 인프라 구축, 컴퓨팅 역량 강화를 위해 최대 10억 달러를 공동 투자한다.

이번 연구소는 일라이 릴리의 의약품 발굴·개발·제조 분야 전문성과 엔비디아의 AI, 가속 컴퓨팅, AI 인프라 분야 리더십을 결합한 것이 특징이다. 미국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에 본사를 두며, 일라이 릴리 내 생물학, 의학, 과학 분야 전문가와 엔비디아 최고 엔지니어들이 함께 근무하게 된다.

우선 신약개발에 적합한 연속 학습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24시간 보조 실험을 가능하게 하는 데 중점을 둔다. 일라이 릴리는 보유하고 있는 AI 슈퍼 컴퓨터를 확장하며, 엔비디아는 오픈 개발 플랫폼 엔비디아 바이오네모 등을 활용하는 등 양사는 인공지능 전환을 이뤄낸다는 방침이다.

/이청하 기자 mlee236@